

農村定住生活圈內의 마을裨補숲과 마을쉼터숲의 比較考察

- 鎮安郡 地域을 事例로 -

박재철

우석대학교 조경학과

Comparative Review of the Groves for making enclosed Village
and Village Groves for making Rest Place in Rural Human
Settlement Region
- Centered on Chinan-Kun Region -

Park, Jae-Chul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Woosuk Univ.

ABSTRACT

This paper search the difference between the village groves for enclosing and the village groves for rest in Chinan-Kun region. Both charged 72.5%(37 groves) of all(51 groves). The form of village groves for rest was various, but that of those for enclosing was linear. The average area of village groves for enclosing was 2,755.4m² and that of those for rest was 661.2m². So village groves for enclosing was 4.2 times larger than that of those for rest. In function of village groves, it was identified that function of complementing vacant part was more important than that of rest in human settlement region. In the transformation of village groves, the village groves for enclosing were transformed into other productive use than those for rest. Although the worship service were performed annually in the past, that were almost disappeared in present. The forest state of village groves were almost deciduous ones. In vegetation structure, the number of upper trees of village groves for enclosing was 5 times more than that of those for rest. In average appearing rate of upper trees, the village groves for enclosing was 2 times more than that of those for rest. The most principal dominant species of both in upper tree was Zelkova

serrata. The species showing highly appearing rate of upper trees were Zelkova serrata, Carpinus tschonoskii, Celtis sinensis, Qercus acutissima, Pinus densiflora, Castanea crenata, Salix glandulosa. etc.

Key Words : Village Grove, Village Grove for Enclosing, Village Grove for Rest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농어촌 지역의 마을 주변에 남아 있는 숲들은 마을 주변에 조성된 후 보호되어 온 숲으로서 다양한 역사,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수난을 겪고도 현재까지 전존해 있는 의미있는 숲이라고 할 수 있다(김학범, 1993). 마을 사람들에게 마을 숲은 마을의 역사와 함께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토착적 정신문화를 상징하고 있는 대상이다. 이러한 숲들은 한국적인 농촌경관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행태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박재철, 1994). 그러나 최근 사회적인 변천에 따라서 자연문화유산인 이러한 숲들이 이용압력과 관리의 부실 등으로 인하여 훼손되고 멸실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김학범(1991), 서호석(1993) 등은 이에 대한 선형연구자들이며 전국적인 차원에서 마을숲 내지는 전통생활환경 보전법에 대한 연구를 한 바 있다. 박재철(1994)은 정읍지역의 지방도 주변의 도로주변림에 대한 연구를 한 바 있고, 박재철(1995)은 기존의 김학범(1991)의 연구를 바탕으로 전북지역 마을숲 20개에 대한 심화연구를 수행하였고, 박재철(1997)은 김학범(1991), 서호석(1993)의 연구를 바탕으로 전북지역 해안숲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그 후 박재철(1997, 1998)은 전북지역 도로주변림과 마을숲, 마을숲과 해안숲의 상호 비교고찰을 수행하였다. 그 후 박재철(1998)은 후속 심화연구로 정주생활권내의 마을숲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송화섭과 이상훈(1996)의 연구를 바탕으로 전안군 지역을 사례로 마을숲의 전존실태를 파악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후속연구로서 1998년에 조사한 정주생활권내의 마을숲 중 마을비보숲과 마을쉼터숲¹⁾을 상호 비교 분석 고찰함으로서 마을비보숲과 마을쉼터숲의 특성을 더 명확히 규명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II. 연구방법

선형연구(박재철, 1998)에서 전안지역에서 51개소의 마을숲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중 위치와 기능에 따라서 분류해 볼 때 표 1과 같이 27개소가 마을비보숲이고 10개소가 마을쉼터숲이고 기타 풍치, 표지, 조립 등을 위한 숲이었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이 중 대표적인 두 가지 마을 비보 숲과 마을쉼터 숲을 상호 비교고찰 하였다.

이에 대한 현지 답사를 1998년 5월부터 11월 10일 까지 15차례에 걸쳐서 수행하여 얻은 자료를 토대로 마을비보숲과 마을쉼터숲의 길이, 면적, 지형, 형태, 유형, 시설, 마을과의 관계 등의 일반적인 특성과 소유형태, 숲의 조성동기, 행태 등의 사회·행태적인 특성, 교목상층부의 출현종수, 총개체수, 하층부의 출현종수, 교목 상층부 수종의 수고, 흉고직경, 흉고돌레, 수관폭, 입목밀도, 상대밀도 개념인 수간거리지수(RSI) 등의 임상 및 식생구조 특성을 상호 비교분석 고찰하였다.

표 1. 전안지역 마을비보숲과 마을쉼터숲의 현황

마을비보숲	마을쉼터숲
1 전안읍 단양리 원단암	1 전안읍 민월리 금마곡
2 전안읍 민월리 원안월	2 전안읍 민월리 산제
3 전안읍 가림리 은진(A)	3 전안읍 구룡리 애리(B)
4 전안읍 가림리 반폭	4 전인읍 구룡리 석곡
5 전민읍 가림리 원가림	5 전인읍 운신리 구운
6 전안읍 가림리 사인동	6 정천면 월령리 상초
7 전인읍 구룡리 애리(A)	7 정천면 월령리 천월평
8 전안읍 구룡리 암곡	8 주천면 구암동
9 전안읍 물곡리 종평	9 나령면 강경리 강경
10 전안읍 일상리 원연장	10 지령면 동촌리 원동촌
11 정천면 월평리 히초	11 부귀면 거식리 금마
12 성전면 구룡리 금당	12 부귀면 거식리 히기석
13 인천면 백화리 율현	13 부귀면 두남리 원두남
14 동향면 성산리 성향	

III. 결과 및 고찰

1. 일반적인 특성 비교분석

면적을 보면 마을비보숲은 평균면적이 $2,755.4\text{m}^2$ 로서 마을쉼터숲의 평균면적 661.2m^2 에 비하여 4.2배 큰 규모였다. 이는 마을비보숲은 위요적인 요소로 조성되었고 마을쉼터숲은 쉼터기능을 위해서 조성됨으로서 기능에 따라서 규모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94-'95년도에 경기도에서 조성된 전체 마을쉼터의 평균면적인 650m^2 와 비슷한 면적이다(이 춘석과 임승빈, 1997). 동원구는 농촌마을공동쉼터의 적정면적을 가구당 10m^2 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66가구에 해당하는 면적으로서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마을의 면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길이도 마을비보숲이 평균 99.2m 로서 마을쉼터숲의 52.7m 의 1.9배로서 약 2배의 길이를 보였으며 평균폭은 각각 27.8m , 12.5m 로서 길이와 폭의 세장비가 표 2와 같이 각각 $1:3.6$, $1:4.2$ 로 나타나 해안숲의 $1:7.6$ 보다는 세장비가 약 반 정도 되는 선적인 형태로 조성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을비보숲과 마을쉼터숲을 비교해 보면 다음 그림 1과 같이 면적의 감소(76.0%)가 길이의 감소(42.9%)보다 큰 것을 알 수 있다.

형태를 보면 마을비보숲은 선적인 형태가 97.3%를 보이고 있어서 마을쉼터숲의 40%에 비하여 월등히 선적인 형태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마을쉼터숲은 선형보다는 원형(20%), 장방형(20%), 삼각형, 불규칙형이 각각 10%로서 선형이 아닌 면적인 형태의 숲이 60%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지형



그림 1. 숲면적과 숲길이의 상관관계

표 2 각 숲의 폭과 길이의 세장비

숲종류	해안숲	마을비보숲	마을쉼터숲
폭과 길이의 세장비	1:7.6	1:3.6	1:4.2

표 3 일반적인 특성 비교

구 분	마을비보숲	마을쉼터숲
면 적	$2,755.4\text{m}^2$	661.2m^2
길 이	99.2m	52.7m
폭 (평균)	27.8m	12.5m
형 태	선형 16(59.3%), 선+장방형 4(14.8%), 선+불규칙형 4(14.8%), 선+사다리꼴 1(3.7%), 선+동선형 1(3.7%), 불규칙형 1(3.7%)	선형 3(30%), 원형 2(20%), 장방형 2(20%), 선+장방형 1(10%), 삼각형 1(10%), 불규칙형 1(10%)
지 행	평坦지 20(74.1%), 완경시지 4(14.8%), 급경사지 3(11.1%)	평탄지 7(70%), 완경사지 2(20%), 급경사지 1(10%)
위 치	마을앞 20(74.1%), 마을입구 6(22.2%), 옆 1(3.7%)	마을앞 3(30%), 마을입구 3(30%), 마을옆 3(30%), 마을 뒤 1(10%)
유 형	개천변, 하천변 7(26.0%), 도로+개천 5(18.5%), 개천+숲통과형 5(18.5%), 도로변 3(11.1%), 숲통과형 3(11.1%), 등산형 2(7.4%), 도로변+등산형 1(3.7%), 능 가장자리형 1(3.7%)	도로변+개천변, 하천변 5(50%), 동산형 2(20%), 도로변+동산형 1(10%), 도로변 1(10%), 개천변 1(10%)
정 지	사각점자 6(22.2%)	사각점자 6(60%), 팔각점자 2(20%)
돌담, 철들	돌담 10(37.0%), 철들 8(29.6%)	석정승 1(10%)
앉을 수 있는 시설	없을 수 있는 콘크리트단, 평석, 평상 벤치 12(44.4%)	앉을 수 있는 콘크리트단, 평석 6(60%)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운동시설 5(18.5%)	운동시설 2(20%)
듬제단	1(3.7%)	1(10%)
농사용기계 및 재료 악적	12(44.4%)	2(20%)

은 공히 평탄지가 약70%를 차지하였고 평탄지 내지는 완경사지가 약90%를 차지하였으며 급경사지에 조성된 숲은 공히 10%에 불과하여 대부분 평탄지 내지는 완경사지에 조성된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다음으로 시설을 보면 마을비보숲의 정자(亭子)는 모두 사각정자였는데 반하여 마을쉼터숲에서는 사각정자와 팔각정자가 함께 나타나서 마을쉼터숲이 정자의 종류가 다양함을 알 수 있었고 정자의 수를 보면 마을비보숲은 6개소(22.2%)만이 정자가 조성되어 있는데 반하여 마을쉼터숲에는 사각정자 6개소(60%)와 팔각정자 2개소(20%)로서 80%의 숲에 정자가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마을쉼터숲이 4배 정도 더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탑과 선돌을 보면 마을비보숲에서는 돌탑이 10개소(37.0%), 선돌이 8개소(29.6%)에서 나타났으나 마을쉼터숲에서는 돌탑이나 선돌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석장승만이 1개소에서 나타나는 데 불과하였다. 따라서 돌탑과 선돌은 비보기능으로 보완하는 기능으로 비보숲과 함께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앓을 수 있는 시설을 보면 마을비보숲은 12개소(44.4%)에서 설치되어 있었으나 마을쉼터숲에서는 6개소(60%)에서 설치되어 있어 마을쉼터숲이 마을비보숲보다 약 15% 높은 비율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마을쉼터숲이 쉼터의 기능을 위한 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은 마을비보숲과 마을쉼터숲이 각각 18.5%, 20%로서 거의 비슷하게 약 1/5의 숲에서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돌제단은 각각 3.75, 10%로서 현재는 거의 잔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제사기능은 현대에 와서 거의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농사용 기계 및 재료의 아적은 마을비보숲이 12개소(44.6%)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마을쉼터숲의 2개소(20%)보다 2배 이상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마을비보숲이 더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사회·행태적 특성 비교분석

먼저 조성동기를 보면 배산임수의 '한국인의 전통입지관(강병기 등. 1995)'으로 볼 때 시야가 트인 부분을 막아야 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 마을비보숲은 비

보, 수구막이, 액막이(화재막이)(이상훈. 1996) 등의 동기로 조성되어 마을을 위요하기 위한 동기로 조성되어 있는 반면에 마을쉼터숲은 마을 공동 쉼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조성함으로서 쉼터 기능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조성동기가 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생산을 위해서 표고재배를 하고 있는 숲은 마을비보숲은 10개소(37.0%)로서 마을쉼터숲은 하나도 없는 것과 비교할 때 마을비보숲은 생산적인 용도로 많이 훠손되어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농사용작업도 마을비보숲은 12개소(44.4%)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마을쉼터숲의 2개소(20%)에 비하여 농사용작업공간으로 마을비보숲이 배이상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나 실용적인 목적으로 더 이용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물놀이와 야영은 각각 18.5%, 20%의 숲에서 이루어짐으로서 공히 20%정도의 숲에서 물놀이와 야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사는 각 숲 공히 약 10%정도의 숲에서 현재는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 기능이 거의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소유면에서 보면 마을소유가 각 숲 공히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마을비보숲이 군소유(郡所有)가 22.2%로서 마을쉼터숲의 10%보다는 10%이상 많음으로서 마을비보숲이 마을쉼터숲보다 군소유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4 사회·행태적인 특성 비교

구 분	마을비보숲	마을쉼터숲
조성동기	비보, 수구막이, 액막이	마을공동쉼터 조성
표고재배	10(37.0%)	0(0%)
농사용작업	12(44.4%)	2(20%)
물놀이.야영	5(18.5%)	2(20%)
운동	4(14.8%)	2(20%)
제사	3(11.1%)	1(10%)
소유	마을소유 21(77.8%), 군소유 6(22.2%)	마을소유 9(90%), 군소유 1(10%)

3. 임상 및 식생구조 특성 비교분석

입목간의 상대적 밀도 개념인 상대수간거리지수(RSI)는 마을비보숲이 38.9%, 마을쉼터숲이 41.1% 입목간의 상대적 밀도 개념인 상대수간거리지수(RSI)는 마을비보숲이 38.9%, 마을쉼터숲이 41.1% 임상을 보면 마을비보숲과 마을쉼터숲 모두 활엽수림이

90% 이상을 차지함으로서 훨엽수립이 대부분이었으며 마을비보숲에서는 극히 일부분이기는 하나 침엽수립이 2개소(7.4%)였으나 마을쉼터숲에는 침엽수립이 없었고 혼효립이 1개소(10%)에 불과하였다. 식생구조를 보면 교목상층부의 평균 개체수는 마을비보숲이 44.2 개로서 마을쉼터숲의 평균개체수 8.4개보다 5.3배 많은 개체수를 보였다. 교목상층부의 출현종수도 마을비보숲의 평균 출현종수는 3.4종으로서 마을쉼터숲의 1.7종 보다 2배의 출현종수를 보였다. 교목하층부의 출현종수에 있어서도 마을비보숲은 평균 5.5종으로서 마을쉼터숲의 1.3종보다 4.2배의 출현율을 보임으로서 마을쉼터숲이 이용압력과 인간의 간섭의 영향으로 히층식생이 빈곤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교목상층부의 우점종의 종류에 있어서도 마을비보숲은 느티나무, 개서어나무, 상수리나무, 소나무, 밤나무의 5종이었는데 반하여 마을쉼터숲은 느티나무, 왕버들의 2종로서 마을비보숲이 2.5배 우점종이 다양하였다. 교목상층부의 우점종의 분포를 보면 마을비보숲은 느티나무 15개소(55.5%), 개서어나무 6개소(22.2%), 상수리나무 3개소(11.1%), 소나무 2개소(7.4%), 밤나무 1개소(3.7%)로서 마을쉼터숲의 느티나무 9개소(90%), 왕버들 1개소(10%)에 비하여 느티나무의 비중이 작고 개서어나무, 상수리나무, 소나무의 비중이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마을쉼터숲은 느티나무가 대부분을 이루는 것을 알 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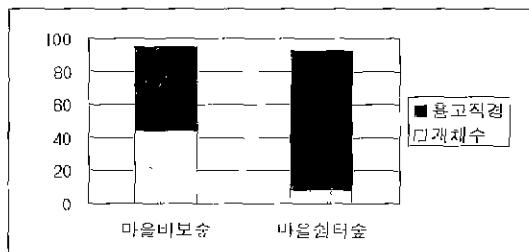


그림 2. 교목상층부의 개체수와 흥고직경의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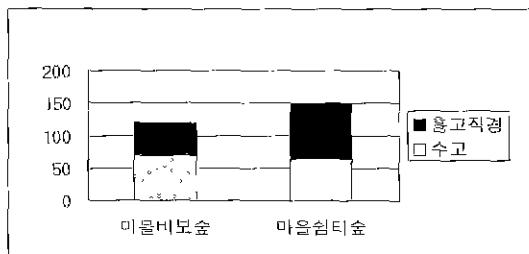


그림 3. 수고와 흥고직경의 상관관계

었다. 마을비보숲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왕버들이 마을쉼터숲에서는 1개소 우점종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출현빈도에서는 느티나무가 대부분의 숲에서 출현하고 있었는데 느티나무의 출현빈도는 마을비보숲(81.5%)보다 마을쉼터숲(90%)이 더 높았다. 개서어나무, 팽나무, 상수리나무는 마을비보숲이 각각 63.0%, 37.0%, 22.2%로서 마을쉼터숲의 30%, 10%, 10%보다 2배 이상 높은 출현율을 보였다. 소나무의 출현은 각 숲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수고를 보면 마을비보숲이 평균수고가 23.1m로서 마을쉼터숲의 21.5m에 비하여 수직생장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마을비보숲의 기능이 방풍이라든가 위요, 차폐의 기능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능적인 영향으로 마을비보숲에는 키가 크게 자라는 나무를 석재한 때문으로 사료되었다 그러나 평균 흥고직경을 보면 마을비보숲이 50.6cm이고 마을쉼터숲은 84.1cm로서 마을쉼터숲이 1.7배 큰 노거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마을쉼터숲이 정자목의 가능도 함께 하고 있는 이유 때문으로 사료되었다. 평균 흥고들레도 마찬가지의 결과를 보였다. 수고와 흥고직경의 상관관계를 보면 다음 그림 3과 같이 수고의 감소율(-6.9%)보다 흥고직경의 증가율(+66.2%)이 상대적으로 훨씬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평균 수관폭도 흥고직경과 마찬가지로 마을비보숲의 13.3m보다 마을쉼터숲이 17.1m로서 1.3배 더 큰 수관을 형성하여 더 큰 녹음을 형성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흥고직경과 수관폭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다음 그림 4와 같이 흥고직경의 증가율(+66.1%)이 수관폭의 증가율(+28.6%)보다 2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임목밀도를 보면 마을비보숲이 0.024주/m²로서 마을쉼터숲의 0.016주/m²보다 1.5배 높은 밀도를 보임으로서 비보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밀도를 높인 것으로 사료되었다. 흥고직경과 임목밀도의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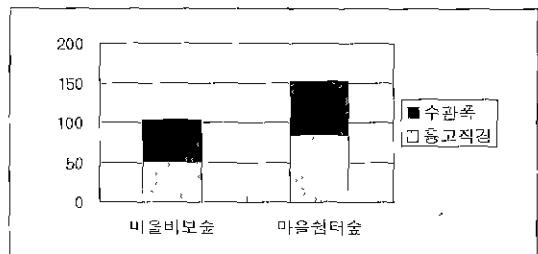


그림 4. 흥고직경과 수관폭의 상관관계

표 5. 임상 및 식생구조 특성 비교

구 분	마을 비보숲	마을 쉼터숲
임 상	활엽수림 25(92.6%), 침엽수림 2(7.4%)	활엽수림 0(90%), 흐흐림 1(10%)
개체수(교목상층부, 평균)	44.2	8.4
출현종수(교목상층부, 평균)	3.4종	1.7종
출현종수(하층부, 평균)	5.5종	1.3종
주요 우점종(교목상층부)	느티나무 15(55.5%), 개서아니나무 6(22.2%), 상수리나무 3(11.1%), 소나무 2(7.4%), 밤나무 1(3.7%)	느티나무 9(90%), 왕버들 1(10%)
출현빈도(교목상층부)	느티나무 22(81.5%), 개서어나무 17(63.0%), 펭나무 10(37.0%), 상수리나무 6(22.2%), 소나무 5(18.5%)	느티나무 9(90%), 개서어나무 3(30%), 소나무 2(20%), 왕버들 1(10%), 펭나무 1(10%), 상수리나무 1(10%)
수고(교목상층부, 평균)	23.1m	21.5m
흉고직경(교목상층부, 평균)	50.6cm	84.1cm
흉고들레(교목상층부, 평균)	185.0cm	289.2cm
수관폭(교목상층부, 평균)	13.3m	17.1m
입목밀도(교목상층부, 평균)	0.021주/m ²	0.016/m ²
평균수간상대거리지수(RSI)	41.1%	41.1%

관관계를 보면 그림 5와 같이 흉고직경의 증가율 (+66.2%)이 입목밀도의 감소율 (-33.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부회자람의 비율에 비해서 밀도의 감소는 절반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목의 흉고직경의 증가에 따라 어느 정도로 밀도를 조절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임목의 상대 밀도 개념인 평균수간상대거리지수(RSI)는 마을비보숲 38.9%, 마을쉼터숲 41.1%로서 마을쉼터숲이 2.2% 높아서 마을쉼터숲이 상대적으로 밀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는 경제림의 경우 적정한 간벌을 했을 때 잔존수목의 밀도수준이 20-30%” “휴양림의 평균 약 30%” (김태진, 1998: 53)에 비하면 둘 다 아주 밀도가 낮은 숲인 것을 알 수 있었다.

IV. 요약 및 결론

정주생활권내의 마을비보숲과 마을쉼터숲을 전안군 지역을 사례로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전체적으로 마을비보숲이 마을쉼터숲보다 약 3배 많이 잔존해 있었다. 이는 마을비보기능이 전통이 잘 보전된 전안지역에서 마을쉼터기능보다 더 중요시 되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2. 마을비보숲의 면적의 평균이 2,755.4m²로서 마을쉼터숲의 661.2m² 보다 4.2배 큰 규모였다. 그리고 이는 '94-'95에 조성된 경기도의 마을쉼터의 면적의 평균과 비슷한 규모였다. 이를 통하여 마을쉼터의 적정 면적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다.

3. 마을비보숲은 선형인 데 반하여 마을쉼터숲은 다양한 형태였다.

4. 조성동기면에서는 마을비보숲은 수구마이, 액막이 등의 비보숲으로서 마을을 위요하기 위한 동기로 조성된 반면에 마을쉼터숲은 마을공동체의 공동쉼터 조성을 위한 동기로 지배적이었다.

5. 시설면에서도 마을비보숲은 들판, 선돌 등의 비보 기능과 관련된 시설과 함께 조성된 경향을 보였으며 마을쉼터숲은 상대적으로 정자(亭子)(사각정자, 팔각정자), 앉을 수 있는 시설 등의 쉼터기능의 시설들과 함께 조성되는 경향을 보이는 점이 다른 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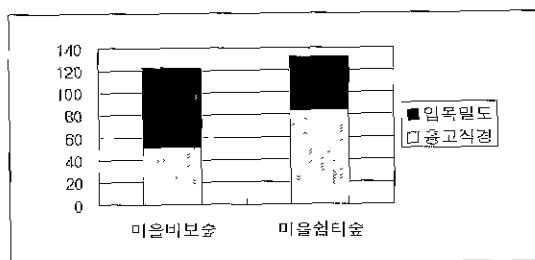


그림 5 흉고직경과 입목밀도의 상관관계

6. 표고재배나 농사용기계나 재료의 약격 등 숲의 다른 용도로의 전용(轉用)은 마을비보숲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어 마을비보숲이 더 훼손이 심하고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7. 제사의 기능은 과거와는 달리 현재에 와서는 마을공동화(空洞化) 현상과 더불어서 거의 사라져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 마을쉼터숲은 모두가 활엽수림 내지 혼효림으로서 마을비보숲의 활엽수림과 침엽수림으로 이루어져 있는 데 비하여 그 기능상 녹음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녹음수인 활엽수가 대부분이었는데 반하여 마을비보숲은 활엽수가 대부분이었지만 침엽수림도 일부 있었다. 또한 마을비보숲이 개체수나 출현종수, 우점종의 수에 있어서 마을쉼터숲보다 더 많게 나타났다.

9. 평균수고는 마을비보숲이 23.1m이고 마을쉼터숲이 21.5m로서 마을비보숲이 수직생장을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흥고직경은 각각 50.6cm, 84.1cm이고 흥고둘레는 185.0cm, 289.2cm로서 부피생장은 마을쉼터숲이 정자목기능과 중첩되어 있는 관계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10. 입목밀도는 마을비보숲이 0.024주/m²이고 마을쉼터숲이 0.016주/m²로서 흥고직경과는 반비례관계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흥고직경의 증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밀도가 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상대수 간거리지수(RSI)는 둘 다 약 40%로서 휴양림의 평균이나 일반 경제림의 간벌숲의 20-30%에 비하여 아주 밀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주1. 마을쉼터숲이란 농촌 마을공원이나 녹지적 성격의 레크레이션 공간으로서 마을비보숲이 마을의虛한 부분을 비보(裨補)하기 위하여 조성된 테 비하여 마을 가까이에 다른 기능도 있지만 주로 마을 주민의 공동쉼터 기능을 위해서 조성된 숲을 말한다. 예를들면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안읍 구룡리 예리마을의 경우를 보면 마을비보숲(A)이 마을과 상당한 거리를 두고 조성되어 있고 마을쉼터숲(B)이 마을옆에 바로 조성되어 있다. 비보기능과 쉼터기능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 51개의 숲 중 위치와 기능이 확연히 구분되는 37개의 숲만을 대상으로 비교고찰 하였음을 밝혀 둔다.

인용문헌

- 1 강병기, 최종현, 임동일(1995) 도성 주요시설의 입지·좌향에 있어 산의 도입에 대한 시각적 특성 해석의 시론 대 한국토도시계획 학회지 30(4): 251-264
- 2 김태진(1998) 휴양림의 입지유형별 풍치시업기준 설정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산림휴양학회지 2(1): 46-64
- 3 김학범(1991) 한국의 마을원림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4. 김학범, 장동수(1994) 마을원림의 경관의미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20(4): 22-24.
5. 박재철(1994) 전북 정읍지역 도로주변림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22(1): 54
6. _____(1997) 전북 농어촌지역 해수욕장 배후림에 관한 연구 조경연구논총 제2집 1-8
7. _____(1998) 전북 농어촌 지역 마을숲과 해안숲의 비교고찰. 한국조경학회지 26(2): 133-142
8. _____(1998) 농촌정주생활권내의 마을 비보숲의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26(3): 152-161.
9. _____(1999) 진안지역 마을숲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계획 학회지 5(1): 56-65.
10. 서호석(1993, 1994) 한국의 전통 생활환경 보전법 (1)(2)(3)(4)(5)(6) 환경과 조경지.
11. 송화섭, 이성훈(1996) 진안의 마을신앙 진안문화원
12. 이성훈(1996) 진안지역 마을숲 이야기. 진안문화 제5호 .179-199
13. 이춘석, 임승빈(1997) 농촌마을쉼터의 최소면적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25(1): 36-46